

'아름다운 세상' 종영, 호평 받는 또 하나의 이유



이 정도면 욕심이라고 해야 할까. 종영한 JTBC 금토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은 사실 너무 진중한 주제의식과 어두운 분위기가 초반 시청률에서도 화제성에서도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욕심 있게 하고자 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 조금씩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의 진심을 알아보게 되었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시청률도 서서히 올랐고 드라마도 화제가 되었다.

결국 2.1%(닐슨 코리아)로 다소 저조하게 시작했던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해 마지막 회 5.7% 최고시청률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중요한 건

결코 쉽지 않은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도 높게 추구에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름이 있었고 그래서 사고로 추락한 한 아이의 이야기는 그러나 사적인 복수의 차원을 넘어서,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사법정의가 이뤄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보여

제작진의 우직한 뚝심에 시청자들 화답

줬다.

학교 옥상에서 떨어진 아들이 자살로 위장되고 심지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까지 쓰게 되는 그 충격을 그 부모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연루된 이들에 대한 복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지만 박무진(박희순)과 강인하(추자현)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난관들을 헤쳐 나가고 그들이 하는 일이 사적 복수가 아니라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택들이라는 걸 되새긴다.

그래서 말미에 이르러 박무진과 강인하는 아들의 추락과 누명에 연루된 두 아이들을 구해낸다. 아들 신호(남다름)를 집단적으로 괴롭히게 만들었고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준석(서동현)은 죄를 저지르고도 발을 받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하지만 박무진은 그것이 진정으로 용서받는 길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구해낸다. 또 강인하는 준석의 아버지 오진표(오만석)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이것이 두려워 가해자로 선호를 지목했던 다희(박지후)를 껴안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박무진과 강인하는 아이들이 잘못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이 문제들이 결국은 어른들의 잘못이라

는 걸 명백히 한다. 이로써 죄를 지은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까지 죄의 식 속에 살아가지 않게 만들며, 죄가 있다면 벌을 받고 이를 뒤우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어쩌면 이것은 이 드라마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일 게다.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도 그만한 벌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아이들이 갖게 되는 실망감, 분노, 좌절, 무력감 등은 과연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만들 수 있을까.

시작은 소소했지만 결말은 단단한 신호(남다름)를 집단적으로 괴롭히게 만들었고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준석(서동현)은 죄를 저지르고도 발을 받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하지만 박무진은 그것이 진정으로 용서받는 길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구해낸다. 또 강인하는 준석의 아버지 오진표(오만석)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이것이 두려워 가해자로 선호를 지목했던 다희(박지후)를 껴안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박무진과 강인하는 아이들이 잘못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이 문제들이 결국은 어른들의 잘못이라

구에 의해 콘텐츠 완성도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시청자들에게는 그 많은 논란들이 잔상처럼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일단 편성을 했으면 충분히 하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내버려두는 것. 어쩌면 비정상과 드라마들이 최근 몇 년 간 약진한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최근 종영했던 tvN 드라마 '자백' 역시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이 드라마는 한 번도 한 눈 팔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밀어붙여왔다. 16부가 한 편의 영화처럼 짜여진 완성도를 가진 놀라운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그것이 허용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리스크가 크지만 완성도를 위해 내버려둔 결과는 좋은 작품으로 돌아왔고 결국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다.

다소 시청률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야기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건 드라마들이 그저 재미만이 아니라 진중한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비정상과 드라마들은 그런 기반 아래서 세상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던져왔고 거기에 시청자들은 화답했다. 지금의 비정상과 드라마들이 갖게 된 위상은 바로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은 그 또 하나의 예가 되는 작품이다.

'녹두꽃' 격동의 시대, 청-일 외세까지 들어왔다 '쌈쌈'



드라마 '녹두꽃'이 역사를 실감나게 담아냈다.

SBS 금토드라마 '녹두꽃' (극본 정현민/연출 신경수 김승호)은 동학농민혁명을 본격적으로 그린 민중 역사극이다. 125년 전 이 땅을 뒤덮은 민초들의 우렁찬 사자후 동학농민혁명을 집중 조명했다는 것만으로도 '녹두꽃'은 기념비적 작품이라는 평가.

특히 절묘하게 엮인 실존 인물, 허구 인물들은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과 맞물려 탄탄한 스토리를

완성하며, 극찬을 이끌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녹두꽃' 19~20회는 이 같은 역사적 접근법이 돋보였다. 황토현 전투, 황동강 전투로 기세를 확장한 동학농민군의 병내. 위기를 느낀 경군은 급기야 청나라에 파병 요청을 했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 악수였다. 청나라의 파병을 빌미로 일본 군대가 조선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백이현 (윤시윤 분)은 청의 파병 소식을 듣고 흥계훈(윤서현 분)에게 위험성을 전하려 했다. 앞서 청과 일본은 천진조약을 통해 조선에 파병할 경우 사전에 서로 알릴 것을 약속했던 것. 청의 조선 파병은 일본 역시 조선에 파병할 빌미였다. 하지만 흥계훈은 백이현의 말을 보란듯이 무시했다. 그러는 사이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제물포에 입성했다.

청의 파병 소식을 접한 후 전봉준(최무성 분)은 천진조약을 떠올리며 되뇌었다. 창의군(동학농민군)이

아니라 조선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귀천이 없는 세상을 위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민초들이 떨치고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혁명이다. 그러나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을 끌어들였다. 이를 빌미로 일본도 들어왔다. 외세까지 조선에 들어왔던 125년 전 이 땅의 역사가 씁쓸함을 남겼다.

한편 이날 방송은 백이강(조정석 분), 백이현, 송자인(한예리 분) 세

'녹두꽃'은 첫 방송부터 20회가 방송된 현재까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탄탄한 스토리를 구축해왔다. 이 탄탄한 스토리 위에서 실존 인물, 허구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듯 역동적인 캐릭터로 움직이며 극대 힘을 불어 넣고 있다. 실제 있었던 역사사이에 더욱 슬프고 실제 있었던 역사사이에 더욱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가 드라마 '녹두꽃'이다.

한편 이날 방송은 백이강(조정석 분), 백이현, 송자인(한예리 분) 세

주인공의 운명에도 커다란 소용돌이가 쳤다. 백이강은 별다른 막내 번개(병헌 분)를 하늘로 떠나 보냈다. 백이강은 번개를 죽인 도체비를 향해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 도체비가 자신이 아끼는 동생 백이현인 줄도 모르고, 백이현은 점점 더 잔혹한 핏빛 야수로 변해갔다. 송자인은 백이강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못한 채, 경군에게 동학농민군 의병대 물래 성문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우연히 송자인의 계획을 알게 된

백이강은 그녀를 막아섰다. 늦은 밤 밖으로 나가는 송자인의 손을 잡아 체며 "나 용서하지 마라"고 말하는 백이강의 슬픈 눈빛. 그를 바라보는 송자인의 놀란 표정을 끝으로 이날 방송은 마무리됐다. 과연 송자인이 저런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백이강-백이현-송자인의 운명은 격동의 시대에 어떻게 휘말릴 것인지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녹두꽃'은 매주 금, 토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MV 유튜브 6억뷰 돌파



걸그룹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가 오늘(26일) 오후

1시 57분께 유튜브에서 6억 뷰를 돌파했다.

유튜브에서 6억 뷰 뮤직비디오 3편 이상을 보유한 K팝 그룹은 블랙핑크가 유일하다. 이전에 한국에서 6억뷰 3편을 보유한 가수는 싸이가 유일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현아가 참여한 '강남스타일'라 할 수 있는 '오빠 짝내 스타일', 그리고 '젠텔맨'이었다.

블랙핑크는 '뚜두뚜두' (8억 뷰)와 '붐바야' (6억 뷰)에 이어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가 6억뷰를 달성함과 동시에 4월에 발표한 '킬 디스 러브'가 아직 두달도 안 된 시점에 3억 7천

만뷰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블랙핑크의 유튜브 조회수 기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는 지난 2017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K팝 비디오'로 선정되기도 했다.

블랙핑크의 신기록 경신은 신곡 뿐만이 아닌, 기존에 발표된 대부분 곡들이 꾸준히 사랑받으며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현재 유행무어를 진행 중인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화를 거듭할수록 블랙핑크의 인기도와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영미권 국가의 팬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블랙핑크는 지금까지 공개한 7편의 모든 뮤직비디오와 제니의 'SOLO' 뮤직비디오, 5편의 안무 영상이 역대 조회수를 기록하며 총 13편의 역대 뷰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최근 8억뷰를 넘어서며 K팝 그룹 최초이자 역대 최고 조회수를 돌파했다.

신곡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는 현재 4억뷰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8억뷰를 기록한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조회수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블랙핑크는 지난 18일 안스테르담, 21일 맨체스터, 22일 런던, 24일 베를린에서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마쳤으며 26일 파리, 28일 바르셀로나까지 유럽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늘의 순세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음력 4월 23일)



▶**성경** 애정의 중심이 흔들리면 마음이 변하고 행동도 변한다. 하고 있는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수입도 좋겠다. 자녀와의 의견 충돌을 피하기가 좋을 듯.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 굶은일 마다 말고 인내하며 그 자리 지킬 것.



▶**성경** 노력하면 얻는 것은 많은데 타인의 일로 나가는 것이 많은 격. 말, 돼지, 범피 지나치게 신경 쓰이는 것은 시간이 약이 된다. 그, ㅈ, ㅊ성씨 겨울철에 비가 오는 격이니 우산 준비하면 옷 젖는 일 없겠다. 두 길은 한승분.



▶**성경** 대인관계도 신경 쓸 때다. 버린 것 다시 찾는 격이 된다. 금, ㅁ, 가정사도 갈등이 심할 수. ㅅ, ㅎ, ㅈ 성씨는 4, 6, 12월생 말만 믿다가 이겨져서 놓치는 격. 동업자의 말은 이익이 없을 듯.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 남서쪽 길.



▶**성경** 혼자서 뛰는 것보다 둘이서 뛰는 것이 힘이 덜 들겠지만 신경은 더욱 쓰인다. 그, ㅈ, ㅊ성씨는 자식에 대한 애착은 좋으나 그로 인해서 애정적으로 금이 갈까 염려된다. 사업에 자금 조달로 힘겹지만 서북면에 귀인이 있다.



▶**성경** 계획한 일이 풀리는 운이나 마음은 더욱 답답하겠. 마음 가는 곳이 여러 방향이었다가 이제 한 길은 택했으니 개, 말, 뱀의 힘이 필요한 때. 마음은 앞장달종 그, ㅅ, ㅊ성씨는 지금 선택한 길에서 행과 불행이 좌우된다.



▶**성경** 자갈 밭길을 선택한 격. 내 놓은 것 매매가 늦어진 다. 그, ㅈ, ㅊ성씨가 도움이 될 듯. 직장인과 연예인 인기 상승에 승전이 소리 높겠다. 4, 8, 12월생 영전소식 아니면 승진계열에 있다. 과로에 요통과 빈혈 조심.



▶**성경**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당신의 자존심과 생각하는 일들을 결정하게 되지만 다시 한 번 긴 안목으로 내다볼 것.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라. 2, 5, 7월생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지만 좀 더 고려해 봄이 좋겠다.



▶**성경** 누구의 말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의사를 분명히 할 때다. 개구리가 웅크리는 것은 전전하기 위함이니 이제 그 때가 왔다. ㄴ, ㅆ, ㅊ성씨 남의 일에 얽매임보다는 내가 설 곳이 어디인지 판단하여 결정함이 좋을 듯.



▶**성경**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간의 일들이 서서히 승산이 보인다. 나와 내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갖는 길 많이 발전하는 길. 1, 5, 12월생 부모에게 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



▶**성경** 성급함은 버리고 지혜를 활용한다면 자기의 믿음을 빼먹는 격은 되지 않을 듯. 혼자 약은 척 하지 마라. 진실된 애정을 원하지만 이미 차 떠난 뒤 손드는 격. ㄱ, ㅈ, ㅊ성씨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신을 반성함이 현명한 방법임.



▶**성경** 부모님이 계시니 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 법. 윗사람을 잘 섬겨야 사업과 가정에 평안함이 온다. 7, 9, 12월생 남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은 버릴 것.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행동함이 좋을 듯.



▶**성경**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반성하라. 집안에서는 큰소리 잘 치면서 밖에서 남들에게 잘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 3, 4, 9월생 연상의 여인 좋아하다 큰 코 다칠 수.